



(1998년 9월 15일 창간)

- 전시민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위 운동

발행·인쇄인 : 조남진 편집인 :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61)256-1260-1 FAX(0361)257-1260

-선교명령수행 새전략 수립. 대회장 길자연 목사-

-석사교회 대성전에서 특별강사 정영관 목사 초청-

- 자원봉사로 20명 1개월 합숙. 값진 열매 -

선교회 소식

- ◆강원대학교신교회(김성환 회장)는 2월3일 되게동 독거노인 2가정과 치료 중인 신교회원 가정을 방문, 위로했다. 매주 목요일 정오기도모임을 갖고 병치사 복사의 지도로 성경공부하고 있다.
- ◆충청남도신교회 신임임원선출
충청남도신교회(김용인 회장)는 2월9일 새임원을 신교회로 교도소에 신교활동에 들어갔다.
신교회장-비봉권 전사 부회장-신임집사 송두-김일영 집사 회계,시-기-장-에 간대
- ◆사람의 안부전화 자원봉사자 모집
월드비전충청지역사회복지원은 김연희가 있는 두터노인네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를 이용한 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주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해결해드리기 위한 "사람의 안부전화"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담당: 강대봉 254-7244)
- ◆캠퍼스33 "캠퍼스를 위한 중보기도의 날" 지점
세종대(김영남)는 3월3일을 캠퍼스를 위한 중보기도의 날로 정하고 7가지 기도제목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학가의 복음화를 위해 중보기도를 계획한다.
① 캠퍼스의 예수신앙의 확립을 위해
② 캠퍼스의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③ 캠퍼스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
④ 캠퍼스에서 일하는 많은 선교단체들을 위해
⑤ 신앙있는 교수, 직원들의 영향력 있는 삶과 지도력을 위해
- ⑥ 지역교회와 미래의 꿈터인 캠퍼스에 대한 선교비전을 가지기 위해
- ⑦ 캠퍼스중보기도의 날이 세계교회와 함께한 기도일이 되기를 위해
- ◆한국제자훈련원 춘천성도집
한국제자훈련원(KJTI)은 전문적인 강의와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선교에 앞장서나간 영적지도자 배출을 위한 제10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문의처 0361)243-6701/262-3192 / www.jdm.or.kr
- ◆어린이전도협회 "영적각성대집회"
춘천어린이전도협회(이무중 춘천지회장)는 2월14일-15일 오후6시30분 월드비전 대강당에서 어린이와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 "큰마인 큰 마음"이란 주제로 이루어진 영적각성대집회를 가졌다.
- ◆예수전도단 모임안내
예수전도단(YWAM)은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춘천지부사무실에서 각장인 양육교인, 화요일 오후6시30분 춘천중앙감리교회 교육관 2층에서 화요일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10시 평강교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기도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오후6시 한림대학 본관 지하2층 마태복음과 강연대학 학생회관 3층 C.C.C. 동아리실에서 각각 캠퍼스 기도모임이 있다.
※ 예수전도단의 활성화로 안정된 사무실과 12인승의 차를 차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 연락바랍니다.
☎ 0361)252-1128 / 춘천시 후평3동 831-11번지 예수전도단춘천지부



2000년 2월·3월 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사역일정

행사명	예정일시	장소	교배부/등록금
세례기 교사강습회	2월21일~25일(수요일 제외) 1차: 오전2시 / 2차: 오후6시30분	베드로성전교회4층 본회강습회장	
세례식반 교사 주강강습회	3월13일~5월23일 (11주간) 오전반 / 오후반 선택가능 오전반: 마태복음의 오전10:00~12:30 오후반: 마태복음의 오후7:00~9:30	베드로성전교회4층 본회 강습회장	교배부 60,000원 (등록금 포함) 등록금 20,000원 (교배부제외)

● 사육교배 - 성경공과(참조시리즈5, 족장시리즈5) 전도공과(부활과 나사로1)과 선교사이야기(에이미 카 마이클) 나는 강행한다. 요절, 관용사, 선교전통, 복음제일
※ 철원, 홍천, 가평, 화천, 양구지역은 곧 실시예정입니다.
문의처 - 0361)253-1443 / 017-378-1349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

한국제자훈련원 제10기생 모집

예수제자훈련원 훈련기관인 한국제자훈련원(원장 유대호목사)은 전문적인 강의와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균형잡힌 제자의 삶을 살도록 정통신학의 정의로 사도적 신앙을 전수하여 세계선교와 캠퍼스, 직장, 영적지도자 배출을 제10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 자격 - 고졸이상의 학업능력 있는자, 교회신학교단체 간사역자 희망자, 지역교회 출석자로 제자훈련, 영적지도자, 선교사 훈련 희망자
· 접수기간 - 2월29일(화)까지
· 지원서류 - 훈련원서, 훈련서약서, 신앙고백서, 추천서, 신실기독교부, 여권사진 2매
· 훈련기간 - 3월22일(목)~10월28일(토)
· 훈련장소 - 춘천시 동산면 군자2리(기숙사, 강의실, 세배방, 도서실함)
· 지원서류 문의 및 접수 - 0361)243-6701/262-3192 / www.jdm.or.kr

성시(聖時)나눔 동호회원 모집

성시나눔과 나눔에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성경인물의 생애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성시나눔 동호회원(대표 안금자 집사)을 모집합니다.
세인들은 나눔을 동호회원, 독서회등 많은 모임에서 활동하지만 기독교인들 모임은 없어 기도중에 이모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이루어지면 매월 회원들에게 성시나눔 및 동호회원들 간담회도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나눔하고 애용함으로써 성경인물 삶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청정인 이신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 관심있는 모든 분
회원신청: 0361)256-1260 성시나눔

2000년 1월 성시선교후원금 보내주신 분

한희원 김진현 최희경 최경은 임은경 김명숙 이은택 홍남석 홍순복 성기는 오홍수 황병찬 왕순옥 허승업 최상호 홍성운 정용현 정유양 김영호 정순녀 안정숙 박동환 안미애 김원철 이병연 정장복 김원호 정성근 최규찬 장기영 임필남 김삼순 안병영 김석범 안병민 김길종 김영명 이학규 양인영 김남철 유근창 조남진 한순수(2) 조은제 기독교선임인(6) 열린침례교회 춘천능사장교회로 사암중앙성교회
춘천순복음제일교회 안로에마인 춘천신앙성교회 춘천신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송금되지 못한 분에서는 허락하시는 대로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금계좌: 예금주: 조남진 본부장
농협 203-02-280238
조흥은행 716-01-001389
주부회 200022-0239352
제일은행 625-20-265119
국민은행 301-01-0585-522

장기와 시신기증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장기기증

· 각막기증: 5세~80세까지 전염병력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고 사망후 6시간 이내에 각막을 적출해야 한다.
· 신장기증: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하며 삶을 이어가는 환우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귀중한 일로 우리몸에 있는 신장2개중 1개를 기증해도 생활에 아무지장을 주지 않으며 회복도 빠르다.
· 골수기증: 골수는 뼈 속에있는 연한 조직으로 이성이 생기기 전 정성적인 피를 만들어내지 못해 백혈병같은 혈액질환에 걸리게 된다. 골수이식이란 병든 골수를 죽이고 건강한 사람으로 부채환한 골수를 주입하여 정상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 뇌사장기기증: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자발호흡까지 불가능한 상태로 이 때 장기를 기증하면 8명이상을 살릴 수 있다.

시신기증절차

사망 후 필요한 서류: 분부소장장에게 유가족이 서명(기증자도 포함)하고 당해 병원인 "사망진단서"(병원사망서), 해부학교실의 의사가 시신을 검안하여 "시체검안서"(자녀사망서)를 제출
· 교통사고사건인 경우는 장기사기류에 경찰서에서 주는 "검사지위서" 또는 "검시원증"이 있어야 시신을 인도할 수 있다.
· 이때 사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확인하고 검사지위서나 원본은 해부학교실에 제출해야한다.
· 동문부에서 전화 연락하면 가족이 희망하는 의과대학 직원이 시신을 인도해준다.
· 생전에 시신기증 등록을 하려면 본부에 연락, 구비서류양식을 받아 등록서와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진 2매를 제출하면 등록된다 기증시에는 가족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 생전의 본인유언으로도 효력발생되나 친족 중 강한 반대 있을 경우, 유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되므로 생존시 동의서가 필요하고 등록증은 신중과 함께 늘 휴대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한다.

생존시에 기증 가능한것 - 혈액, 골수, 신장
사후에 기증 가능한것 - 각막, 뼈, 시신
뇌사시에도 기증 가능한것 - 심장, 폐장, 췌장, 간장, 췌장, 신장, 각막 등 건강한 장기 모두 가능

* 문의처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14-1 장기기증강원지역본부
0371)731-0855 조청진 사무국장 / 1588-1589(24시간상담)

용천교계소식

- ★용천교정신우회(김정자 회장)는 신년도 주요사업으로 매월 정기에 배분된 헌신예배, 등반, 체육대회, 장학금지원, 미자립교회지원, 봉구이웃을 돕기로 했으며 2월부터 정오기도모임을 갖기로 결정하고 21일 명문보리밭집에서 제1회 정오기도회와 오찬이 있을 예정이다.
또 2월28일 오후5시30분 흥천안교회에서 양명환 목사의 설교로 2월정기예배 및 율례회회를 가질 예정이다.
- ★용천교장로교회(장용천 목사), 미리안교회(이금희 회장)는 1월15일 내전 복지회관에서 창건 12.3리 노인 70여명을 모시고 만두국, 떡, 과일등 경로잔치상을 마련하고 기념품을 드렸다.
2월11일 장춘초등학교 졸업생 3명에게 각 100,000원, 16일 내전중·고등학교 학생 2명에게 각 500,000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제14회 용천 초교목 목욕성가대회
밀양성교회(원오환 회장)는 2월26일 오후2시 흥천안교회(양명환목사)에서 중·고등부 목욕화를 위해 교회를 초한인 15개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제14회 흥천초교목 목욕성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상과 금, 은, 동상등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었다.
- ★용천교회(이일우 목사)는 2월15일부터 17일까지 흥천내내 운동장에 위치한 교회에서 겨울성경학교를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진도활동을 했다.
- ★김경남장로 정년퇴임
흥천중앙감리교회 김경남장로는 흥천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2월22일 교정에서 명예로운 정년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 ★이성삼 명예기장단부장 정년퇴임식
흥천중앙감리교회 장로는 1월24일 흥천동지회방에서 3년급 과장을 마치고 장로안수를 받고 내전 자운1리 경로당을 방문,금일봉을 전달하여 부족한 연료비에 도움을 주었다.
- ★용천성경교회(김기찬 목사)는 1월13일-17일 김효상 목사를 강사로 초청, 신유축복대신회 및 21일 특별집회를 개최하였다.
2월2일 열린 "가상(假想)죽음"의 관 입관세례예배에서 희망한성도 53명은 관속에서 3분간 묵상기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지혜하는 요인 들을 관속에 매개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례적인 체험을 하였다.
- ★용천 연세목회 신학연수원 신입생모집
흥천연세목회 신학연수원(원장 김기찬목사)은 평신도 지도자과정 연 수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 격: 남녀세례교인으로 고졸 학력이상(교과과제없음)
○수업단위: 2년(4학기)
○학 과: 상담신학, 선교신학
○수업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7시-10시, 학과별 50명모집(선착순)
○접수기간: 2월19일(토)까지
○문의전화: 0366)432-0771 연세신학연수원 / 432-1995 흥천성경교회



세계 교회 실태

브라질교회

카톨릭 신자가 90%이며 나머지 10% 중 90%가 오순절계통이고 그중 10%가 장로교파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는 진주교가 쇠퇴하고 복음주의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회는 1960년 400만명에서 1990년 2600만명으로 성장했다.
브라질교회는 21세기에 경제적 불평등, 불행, 이기주의, 범죄, AIDS 등 사회적 문제에 예민하게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행력을 확산한 개 교회이며 제자 훈련, 성경공부, 기도, 신도양성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중국교회

1만2천에 교회당 2만5천여 집회소, 신도1천만명, 17개 신학교가 있다.
해외교회와 교류를 넓히고 신학교 사역 교수진 양성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고, 50여개 소수민족의 다양한 요구

와 가장교회의 목소리가 있다. 중국교회는 해외교회와 공식무대를 통해 교류를 바라며 개교회, 교단 차원의 지원과 교류는 꺼리는 형편이다.
지원은 반드시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일본교회

일본은 무종교 무신론자가 12.3~60% 신도와 불교27~60%, 신종교23.5%, 기독교2%중 개신교는 0.44%이다.
7,500개교의 120개 교단에 100만명 신도가 있고 140개 단체 2500명의 해외신교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 자체에서 파송한 신교사가 200여명이다. 소수의 성도지만 오랜 기독교 전통 아래에서 자라 매우 수준높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철저한 집단집행력, 불교와 신도의 막대한 영향력과 부족할 것 없는 경제력등의 조건은 일본복음화의 장래에 이두를 면오르지 21세기에도 영적대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월드비전 자원봉사자대회

제7회 월드비전 춘천지회 자원봉사자대회가 2월1일 오전10시 3층대강당에서 이순환관장 주재로 후원회기독교연합회장 김도하와 정철준총회장의 외경의 격려사와 99년 불우한 이웃에게 봉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은 유공자를 위한 표창식이 있었다.

서아프리카 단기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99년 여름 YWAM, D.T.S Outreach의 일원으로 서아프리카의 관문인 세네갈과 감비아 공화국을 11주 동안 체험했다.
세네갈과 감비아는 사막일대에 의해 민족과 국도가 갈라진 나라로 1960년대 프랑스와 영국지배하에서 각자 독립한 다민족국가이다.
세네갈은 현재 프랑스의 경제식민지나 다름이 없고 감비아는 세계에서 다섯째로 가난한 나라이지만 가난이 없어도 평화로운 나라임이 기쁘게 느껴진다.
그런데 안타까운일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해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조금 깨달은 젊은이들은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며 지체 사람들은 낙관적인 것이지 무기적인 것이지 마냥 태연하다. 한마디로 발전가능성이 없고 인간의 생가치는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 나라들도 빈한함이 사람성수를 형제(순복음춘천교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살아있는 기독교인을 위하여



차 관식 목사
춘천제일감리교회
(동지방 감리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 천년이 우리에게 안기는 의미는 인간의 힘으로는 시간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는 한계표지이며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차원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는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2000년을 넘어서 또 다른 천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완성되어 그 종말을 고하며 인생의 수고와 눈물이 하나됨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늘나라 천년왕국의 도래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맞이한 새해 2000년은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몸부림이나 봉사, 그리고 끝 모르는 시대의 변화도 하나님의 천년왕국과 맞닿지 않는 한 모든 것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을 예비함으로 새 천년 2000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저 이 고개를 넘겨줄라 함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뿌리를 자르고 탐욕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깨닫고서 허물을 두르고 나타나면 독수리가 먹이를 가로채듯 속히 제하시십시오. 우리의 집안이나 교회에 세속적인 사상이나 풍조가 누룩처럼 번져 갈 때면 미운 원수 그림자조차 역겨워하듯 단호히 쫓아 버립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행하여야 합니다. 확신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어떠한 행위도 위선일 수 있습니다. 남이 가니까 따라 가는 길은 옳고 바른 길은 아닙니다. 옳은 일을 행할 때의 의미를 잃어 버림으로 행하러 가는 길은 갈수록 멀어질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할 때 남들의 찬사가 없더라도 가는 길은 옳고 바른 길이며 끝없는 나이는 물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일에 도전하며 그 성공은 신령을 굳게 지킴으로 반드시 얻어짐을 믿고 행하십시오.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개성은 추구하되 보편성을 잃지 않으며 더불어 이웃을 돌아보며 거룩한 일을 행하며 동무상임을 즐겨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에는 생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아들이 분주하며 생각이 많을수록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입하

는 권능을 덧입고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역사를 지행하는 거룩치럽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인류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결혼과 가정을 신성히 여겨 부부간에 음란과 불리의 염이 틈타는 것을 경주하며 부모와 자녀간에 존경과 신뢰가 있어 모범과 복음이 뚜렷한 가정을 만듭시다. 가정은 집안을 하나님나라로 옮기는 울타리이며 세우며 주부는 집무리에 끌리지 않고 지혜를 다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며 자녀들은 진리를 향해 달리는 거룩한 욕망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가정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끝까지 버티어야 할 인류 최후의 방비입니다. 교회 또한 예수에 대한 지식만 가진 교회만을 믿는 무리에서 벗어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이며 그 분 때문에 내가 살며 죽으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가진 무리로 탈바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령복음을 외치고 핏발선 폐전병의 외침이 아닌 영혼 구원의 뜨거운 소리로 전하며 선교를 행하고 교회사정의 발판으로 목회적인 유죄로 여기지 아니하며 독일에 갇힌 영혼을 풀어주는 빛의 사전, 생령의 사전으로 실행되는 선교이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예수그리스도의 2000번째 생일 선물로 구원받은 지구를 울려드리며 빛의 자유를 얻은 10억의 인도영혼과 주님 앞에 전진국민이 경배하는 한반도를 바쳐드리는 믿음의 교회로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 사람마다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가치는 혼돈과 행동양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이 시대는 우리가 갈라 어디로 흘러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지 않아 혼돈의 강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양심을 깨우칠 어른을 찾습니다. 역사의 앞날을 제시하는 성도를 찾아 갈길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절대 진리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를 안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새날에는 시대를 향한 질타와 비평을 넘어 바른 길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의 때를 아는 이들, 그 날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기독교가 이 시대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힘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정결함이 곧 힘입니다. 거짓의 껍을 갈라버리는 용기와 남들이 걸기를 싫어하는 청빈과 섬김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십시오. 기독교인의 삶으로 나타내는 헌신만큼 시대의 도덕적 수준은 향상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른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높이 선 명대위에 깨어있는 파수꾼들입니다.

4·13 국회의원 선거출마자들의 성시화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4월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춘천지역구 출마자들이 춘천성시화운동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 당선 이후 춘천성시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본지와 지면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당권자와 무관하며, 원고집수 순서임)

남 동 우



Q 현재 춘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시화에 대한 귀하의 견해와 비전은 무엇입니까?
A 우리 주변의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을 기독교의 복음과 사랑으로 보살피고자 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되고 아름답게 어울려 사는 성령의 도시 춘천.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두에 서는 성시화운동의 본거지 춘천.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聖都(성도) 춘천.

저는 제 고향 춘천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Q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성시화운동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할 계획입니까?
A 춘천을 기독교 문화가 꽃피는 도시로 만들기위해 모든 교파의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기독교 문화도시건설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 일환으로 춘천의 모든 교파가 참여해서 한국 최대규모의 연합성가합창단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연합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훌륭한 악단으로 육성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송가를 부르는 신자들을 위해 교회에 나가 피아노반주도 직접 해드릴 계획입니다.

Q 춘천의 모든 교회 기독교인들이 성시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 모든교파

가 막힌 벽을 열고 상호존중협력하는 연합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도 목회자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Q 춘천의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일이 무엇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교회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전도나 무리한 교세확장은 참된 신앙의 진리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교회, 자신의 교파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교파, 다른 교회를 배타시키는 소수적 자세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Q 귀하의 정책 및 공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공약을 받는 시민이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실천하지 못할 공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춘천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위해 무수한 몇가지 정책과 공약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공천후) 밝혀드리겠습니다. 다만, 중도 및 춘천호반에 음악, 미술, 위락, 미니어처를 포함한 복합문화단지(Complex)건설 추진, 소양강의 안정성 제진단과 시설보강, 미군부대의 외곽이전 추진, 경춘선 복선전철공사 2006년 전 조기 완공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깨끗한 정치인, 용기있는, 바른말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한 승 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춘천시민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꾸어 춘천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복된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성시화운동은 춘천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때 더욱 활성화된다는 인상을 강력히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의 장들이 이러한 운동에 적극 호응하고 열심히 분들이 많이 임명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많이 춘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춘천성시화운동은 춘천의 기독교 사회에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지도층과 아울러 일반인들도 적극

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기획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사랑이며 사랑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춘천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은 성시화도 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발전해가는 한국에서 춘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시대에 춘천이 뒤처지지 않도록 고속정보통신망이 사용될만한 도시를 만들고 세계와 시대에 춘천의 명성이 춘천에 머물 수 있도록

더욱 아름답고 축복된 도시로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를 하루하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의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교육

춘천성시운동본부 홈페이지 제작교육을 위한 교육 및 회의가 2월11일 오후3시부터 8시까지 성시본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유근창 교수의 주선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윤환용(etyema 대표이사)선교사의 강의와 지도가 있었다. 관련된 일체 비용은 유근창 교수의 부담으로 이루어졌다.



춘천성시화지도모임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성시화지도모임(대표 이종우장로)은 1월20일 오후6시 월드비전 3층강당에서 각신교단간사와 직장신교회 임원 및 지도모임 회원들이 함께 모여 발전방향을 협의하고 조직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위임,차기회의에서 인준받아 확정하기로 했다.



명예기자 신년교례 및 협의회
성시신문 명예기자단장(김동원 장로)은 1월25일 오후6시 월드비전 대강당에서 명예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예배 및 협의회를 갖고 서울특별시당에서 만찬으로 친교하였다.

성시화 사역을 매월 돕는 아름다운 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춘천교회

1대교구장 권희종 목사 2대교구장 유화형 전도사
장로: 조남인 최동인 주승희 김용현 박영일 이주수
임원: 임기록 김진형 조은경
상임전도사: 원정환 이봉숙 정성욱
교무전도사: 원동현 남종욱 안순기
사무간사: 윤영미
파송전도사: 김두원 최은순

박합성/대
대장: 김용수
지회: 안배수 최성희
반주: 이영진 김두원

신복성/대
대장: 김진현
지회: 조은경
반주: 임은경

보신나/대
대장: 이종우
지회: 김지현
반주: 최지현

간월성/대
대장: 이종우
지회: 김지현
반주: 최지현

간월성/대
대장: 이종우
지회: 김지현
반주: 최지현

200-082 강원도 춘천시 호서2동 661
☎ 교회사무실 253-2741 당회사무실 253-2742 목사관 253-2743 FAX 241-2741
• 1대교구 253-2842 • 2대교구 256-2741 • 3대교구 253-2841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춘천석사교회

원로목사: 박기조
주목사: 손하균
성무전도사: 오은민 신미자
임혜성 최영길
교무전도사: 김철수 최영길
성가대장: 김철수 최영길
반주: 김철수 최영길
반주: 김철수 최영길

박기조/대
대장: 김철수
지회: 최영길
반주: 김철수 최영길

신복성/대
대장: 김철수
지회: 최영길
반주: 김철수 최영길

200-082 강원도 춘천시 호서2동 661
☎ 교회사무실 253-2741 당회사무실 253-2742 목사관 253-2743 FAX 241-2741
• 1대교구 253-2842 • 2대교구 256-2741 • 3대교구 253-2841